

IT 부품/전기전자

미중분쟁 (상호관세 유예발표) 수혜주 찾기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박형우

hyungwou@sks.co.kr
02-3773-9035



Analyst
권민규

mk.kwon@sks.co.kr
02-3773-8578

<미중분쟁 Phase.2: 트럼프 행정부, 관세 비보복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9 (미국 현지시간 기준)에 관세 비보복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시작된 미중분쟁이 심화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그 외 국가들과의 마찰은 완화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중분쟁 반사수혜를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피해/수혜 기업군을 고민했다.

<미중분쟁 피해 기업군: 무역 분쟁은 전체 IT 산업에 악재>

- 1) 중국 기업 중 미국으로 수출 업체에게 부정적: 중국 세트 메이커 및 OEM/ODM 제조사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국 IT 제조의 핵심은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이다. 관세 부과로 중국 지방정부의 CAPEX 지원과 유통보조금 효과가 희미해진다.
- 2) 미국 기업 중 중국에 생산 위탁 업체들도 부정적: 미국 플랫폼들의 대다수는 제조역량을 아시아 국가들에 위탁한다. 그 중 애플 아이폰은 지난해 생산 물량의 87%를 중국에서 생산했다고 추산된다. 올해 중국에서의 생산비중을 약 5%p 낮추겠다고 하나 쉽지 않다. 아이폰의 원가상승이 우려된다.
- 3) 미중분쟁은 전반적인 IT 산업에 부정적: 미중분쟁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중간재 역할을 하는 부품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내 세트 판매량과 부품 주문이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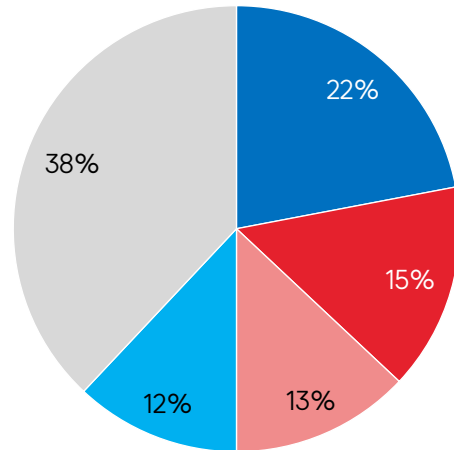
<주목할만한 미중분쟁 반사수혜주: 한국 내 구조적 수혜 제품군 선별>

미중분쟁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질 기업군을 주목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 규제는 2018년과 2019년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한국 IT 하드웨어 기업들(특히 단순 조립, 모듈)에게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기회가 됐다. 무역 분쟁 중 반사수혜 제품군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TV/가전: 미국 TV, 가전 시장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다. TV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약 40%, 중국기업들이 약 50%를 점유한다. LG 전자가 관련기업이다. LG 전자는 미국 지역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고, 중국 지역 매출은 미미하다. 또한, 미국 수출을 대응하는 제조공장이 대부분 중국 외의 지역에 위치한다.
- 2) 갤럭시 및 스마트폰 부품주: 100% 관세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행된다면 애플은 피해가 클 것이다. 미국에서 아이폰(점유율 45%)에 이은 두번째 브랜드는 삼성 갤럭시(점유율 25%)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규모는 2024년 1억대였다. 갤럭시 및 한국 부품 밸류체인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 3) MLB 기판: MLB 기판 공급부족의 시작은 2020년의 미중분쟁이었다. 향후 쇼티지 심화가 예상된다. 국가적 배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플랫폼 또는 장비 기업들은 여전히 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MLB 기판 부족분을 수입 중이다. 관련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다.

미국 내 TV 점유율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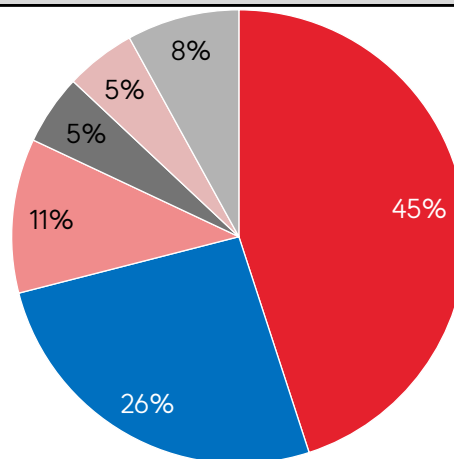
- Samsung (한)
- TCL (중)
- Hisense (중)
- LGE (한)
- Others



자료 : SK 증권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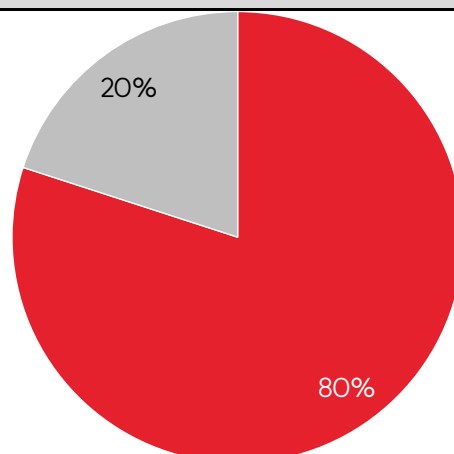
- Apple (미/중)
- Samsung (한)
- Lenovo (중)
- Google (미)
- TCL (중)
- Others



자료 : SK 증권

메인보드 글로벌 생산(공급) 비중 (2024년 기준)

- 중국
- 기타



자료 : SK 증권 / 주: 메인보드는 HDI, MLB, SLP 등

Compliance Notice

작성자(관리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 년 04 월 10 일 기준)

매수	97.55%	중립	2.45%	매도	0.00%
----	--------	----	-------	----	-------